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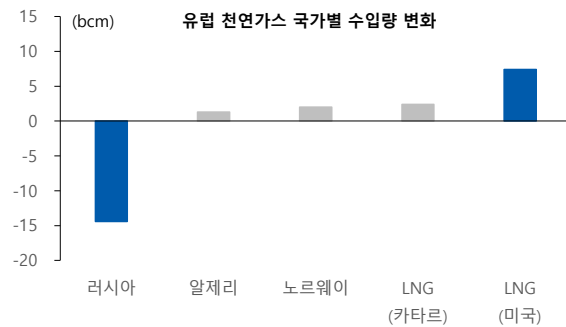


미국 LNG, 대안을 넘어 대체를 목표로

1. 러시아 천연가스 대안으로 주목받는 미국 LNG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주목
-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러시아산 가스 공백을 채우려는 유럽의 의지 확인
-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현황을 보면 현재 LNG량은 증가하는 유럽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백을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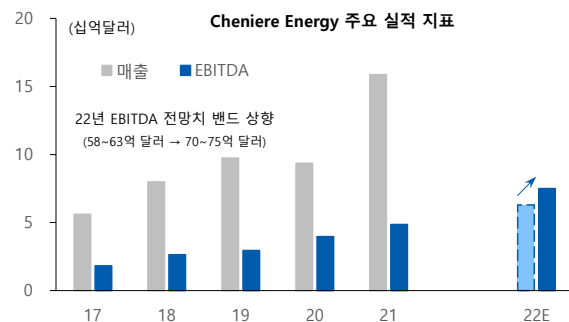


자료: I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1년 10월~'22년 1월 기준

2. 새로운 LNG 수요처 등장의 수혜

- 유럽향 LNG 수출 확대의 수혜는 LNG 생산 및 수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Midstream 기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전망
- 미국 최대 LNG 생산 및 운송업체인 Cheniere Energy(LNG)는 이미 지난 4분기 유럽향 LNG 수주 증가(yoy +36%)로 기록적인 호실적 달성
- 높은 천연가스 가격에 더해 그동안 주요 고객이었었던 아시아 지역 외 유럽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한 당사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유효

Cheniere Energy는 EBITDA 전망치를 기존대비 19% 상향, 유럽향 LNG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 반영



자료: Cheniere Energ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러시아 천연가스 대안으로 주목받는 미국 L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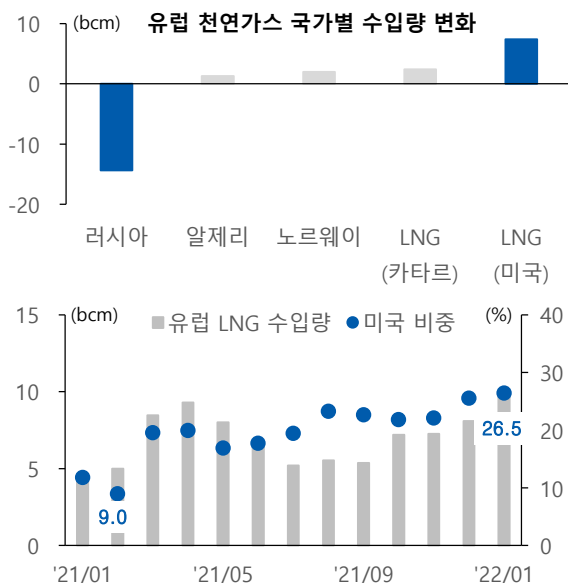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노르웨이(PNG), 미국(LNG), 알제리(LNG) 등지에서 가스 수입량을 증가시키며 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난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아산 가스의 공백을 채우려는 유럽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LNG량은 증가하는 유럽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지역별 천연가스 재고 현황을 보면 각 지역의 천연가스 재고는 최근 5년 내 최저점에 도달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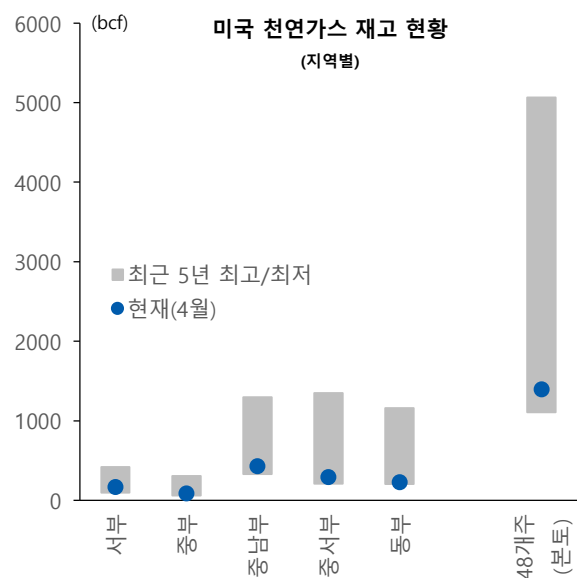
유럽향 LNG 수출 증가는 EOG Resources(EOG), Pioneer Natural Resources(PXD), Cheniere Energy(LNG)를 비롯해 미국 천연가스 시장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차트1] 유럽의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백을 미국산 LNG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중.



자료: IEA, Eurosta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21년 10월~'22년 1월 기준

[차트2] 미국 천연가스 재고를 보면 이미 미국 본토 내 전 지역에서 재고가 부족한 상태임이 확인 가능.



자료: IE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새로운 LNG 수요처 등장의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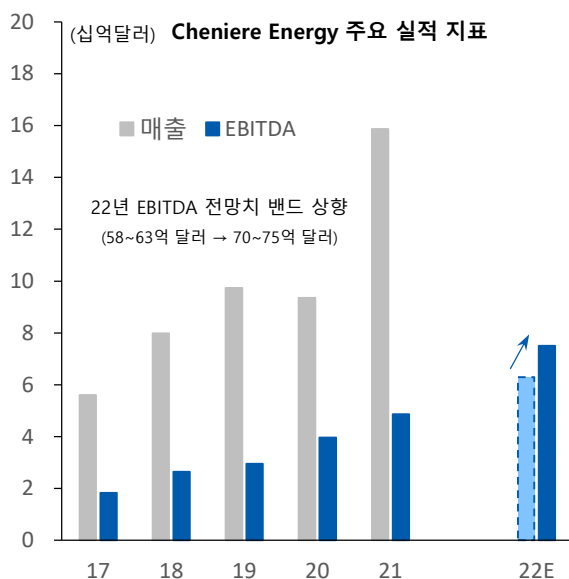
천연가스 생산 확대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본다면 유럽향 LNG 수출 증가의 수혜는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 중에서도 LNG 생산 및 수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Midstream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미국 최대 LNG 생산 및 운송업체인 Cheniere Energy(LNG)의 경우 이미 지난해 4분기 유럽으로 가는 LNG 수주 증가(yoy +36%)로 기록적인 호실적을 달성했으며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EBITDA 전망치 +19% 상향)을 내놓은 상태이다.

추가로 Cheniere Energy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LNG 수출터미널 7개 중 가장 생산 용량이 큰 2개(Sabine pass, Corpus Christi)의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다. 올해 2월 Sabine pass 터미널 내 LNG 생산 및 저장 시설인 Train 6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당사의 LNG 생산 능력이 크게 확대된 점도 향후 매출에 긍정적인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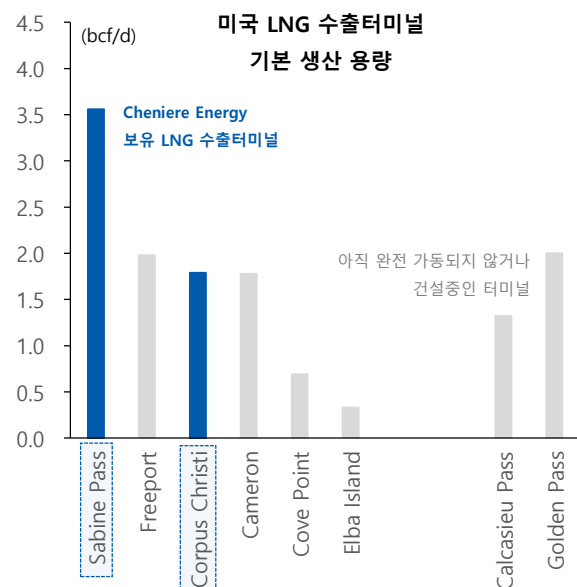
현재의 높은 천연가스 가격(TTF 기준 YTD +45.0%, Henry Hub 기준 +95.7%)과 더불어 그동안 Cheniere Energy의 주 고객이었던 아시아 지역 외에 유럽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한 당사의 수익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차트3] Cheniere Energy는 EBITDA 전망치를 기존대비 19% 상향, 유럽향 LNG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 반영.



자료: Cheniere Energ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Cheniere Energy, Peer 대비 가장 높은 LNG 생산 용량 보유 (5.35 bcf/d vs Kinder Morgan 0.33 bcf/d).



자료: EIA, Cheniere Energ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